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경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정호

대한신경외과학회 박정율

대한기생충학회 채종일

학습 목표: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경험을 통해, 소속 학회 학술지의 등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1) Medline, EMBASE 및 SCIE 등재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등재를 위한 준비 과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3) 영문으로 학술지를 발행할 때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SCIE 등재경험(대한기생충학회)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학습 목표: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경험을 통해, 소속 학회 학술지의 등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1) PubMed, EMBASE 및 SCIE 등재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등재를 위한 준비 과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3) 영문으로 학술지를 발행할 때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1. 대한기생충학회 발간 학술지 소개

잡지명: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영문)

발행처: 대한기생충학회

인쇄: 서울대학교출판부(2008년부터는 Academia 사)

발간횟수: 계간(연 4회)

등재: SCIE, Medline/Index Medicus, PubMed, Helminthological Abstracts, Protozoological Abstracts, Tropical Diseases Bulletin, Scopus, Google Scholar, Review of Medical and Veterinary Entomology, Zoological Record, Biological Abstracts, KoreaMed, 학진 등.

홈페이지: <http://www.parasitol.or.kr> (PubMed-link 전문 무료 제공)

편집인: 채종일

부편집인: 홍성중, 손운목, 양현중

편집위원: 국내 17인, 외국 10인

2.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발간의 역사

학회 공식 학술지는 1963년 6월 20일 '대한기생충학회잡지'란 제호로 처음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총 100면이었는데 원저 논문 7편과 제1회-제4회(1959-1962)까지의 학술대회 초록집을 수록하였다. 국문 논문 및 영문 논문을 혼합하여 게재하였다. 창간 해에는 연1회 발간하였으나, 제2권부터는 '기생충학잡지'로 바꾸고(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연 2-3회(6월, 11월, 12월) 발행하였다. 표지에는 main title '기생충학잡지'를 서예체로 쓴 글을 동판으로 만들어 1992년(제30권)까지 사용하였다.

'기생충학잡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화하고자 노력한 결과(영문 논문 수를 증가시킴), 1990년에 Index Medicus 및 Medline 등재가 결정되었다(논문 indexing은 1988년도 발간 분부터 소급 적용). 그러나 미국 NLM의 자체 내규에 따라 영문 표기명을 "Kisaengchunghakchapchi"로 사용하게 되어 독자가 논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인용할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이에 주 제호(main title)를 영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결국, 1993년부터 제호를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JP)'로 변경하였고 한글인 '기생충학잡지'는 글씨 크기를 축소하여 잡지 맨 뒷 페이지 판권 난에만 사용하고 있다. 제호를 영문으로 바꾸고, 완전히 영문 학술지로 바꾼 것은 드디어 2008년부터 SCI-expanded에 들어가게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생충학잡지'는 1965년 3월 16일 문공부(현 문광부)에 정식 등록되었고(등록번호 제 바-112호), 발간 부수는 다소간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매 호 500부-1,000부를 발간해 왔다. 초기에는 인쇄소가 자주 변경되어 표지 색, 활자, 체재 등이 자주 바뀌는 등 불안정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으나 1975년부터 33년간은 변동 없이 '서울대학교출판부'로 고정하여 편집, 인쇄하면서 꾸준히 품위를 높여 왔다. 논문의 질이나 편집 체제, 그림, 사진, 교정, 인쇄에 이르기까지 국제 수준급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왔다. 이는 잡지 발간을 주관해 온 역대 학술부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물론, 모든 회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였다.

3. SCIE 등재를 위한 노력과 실패의 연속

KJP가 Medline, Index Medicus 및 PubMed에 등재되고, 1993년부터 완전 영문 학술지로 바뀐 후 약 5년간은 그런 대로 잡지 발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1998년경, 국내에 이른바 SCI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너나없이 외국 SCI 학술지에 자신의 최상급, A급 논문들을 모조리 투고하게 되면서 국내 학술지는 엄청난 원고 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KJP는 그런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학술지였다. 급기야는 매 호 학술지 두께가 빈약하기 짝이 없고 논문 수도 몇 편에 불과하게 되어 심각한 위기로 몰리기까지 하였다.

미국 ISI 사에 KJP의 SCI 등재 신청을 5차례에 걸쳐 하였으나(1993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모두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KJP 편집진과 학회 회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학술지는 더욱더 얇아지고 우수한 논문은 모두 외국에 빼앗기는 상황이라 희망도 별로 없었다. 다만, 고무적인 현상의 하나는 KJP 논문의 impact factor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태국, 일본, 터키, 이란 등 외국 저자들로부터 투고되는 논문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근근이 학술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KJP 논문의 impact factor 추이(self-citation 제외)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Y축: impact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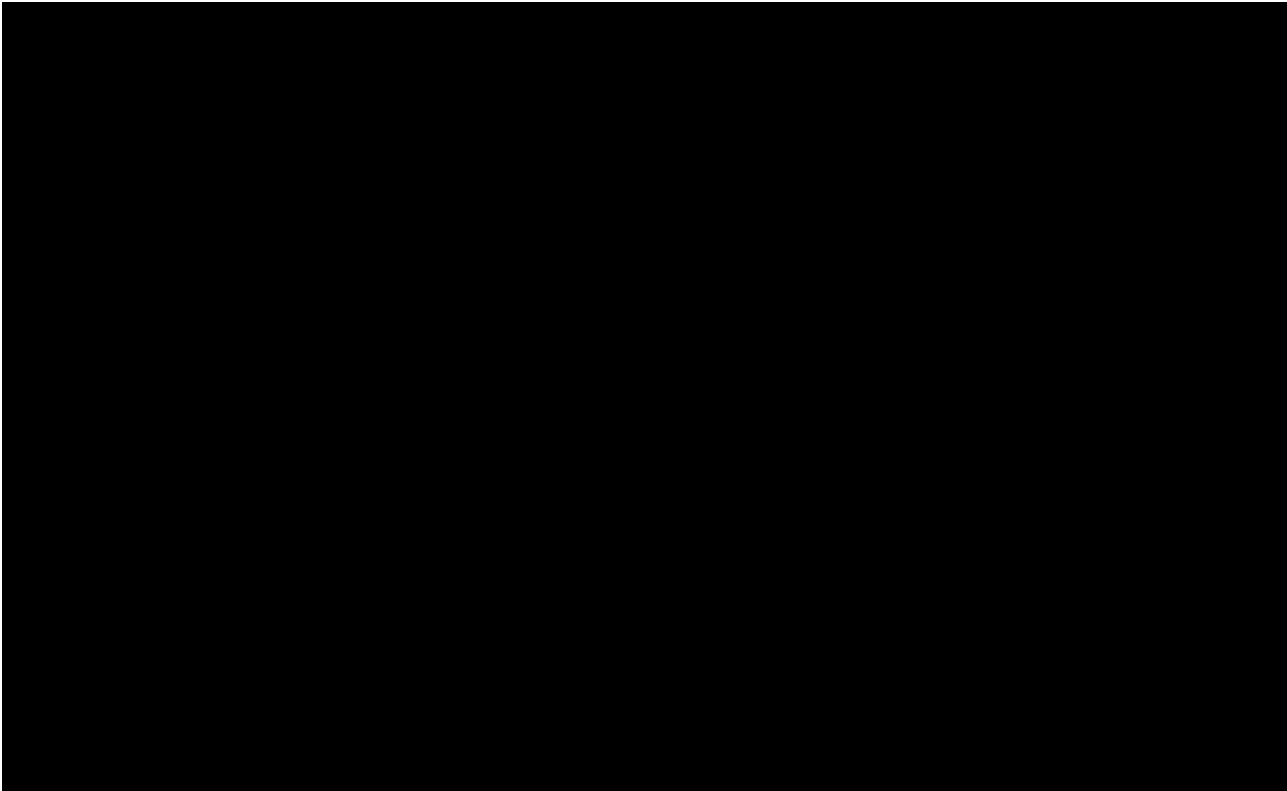


그림. KJP 논문 impact factor의 변화(1965-2006).

투고논문 수가 적어 매우 힘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선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KJP의 연도별 논문 게재율(게재논문/접수 논문)은 2003년-90%, 2004년-80%, 2005년-78%, 2006년-85%, 2007년-7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4. SCIE 등재 결정에 도움이 된 요인의 분석

KJP는 2008년부터 SCIE에 등재키로 결정되었다. 이는 처음 SCI의 문을 두드린 지 15년 만에야 이룬 일이다. 등재가 결정된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판단한다.

- 1) 완전 영문학술지로 전환한지 15년이 경과되어 영문학술지로 자리를 잡음
- 2) KJP impact factor와 피인용빈도의 급격한 증가
- 3) On-line system에서 논문 전문 무료 제공(PubMed, KoreaMed, Scopus 등)
- 4) 발간일 준수(3월호일 경우 3월 10일 경에 발간, 3월 말을 넘기지 않음) 및 e-pub 조기 실행
- 5) 게재 논문 편수의 증가(unique 한 내용의 논문 증가) 및 rejection rate의 증가
- 6) 편집 업무에 완벽을 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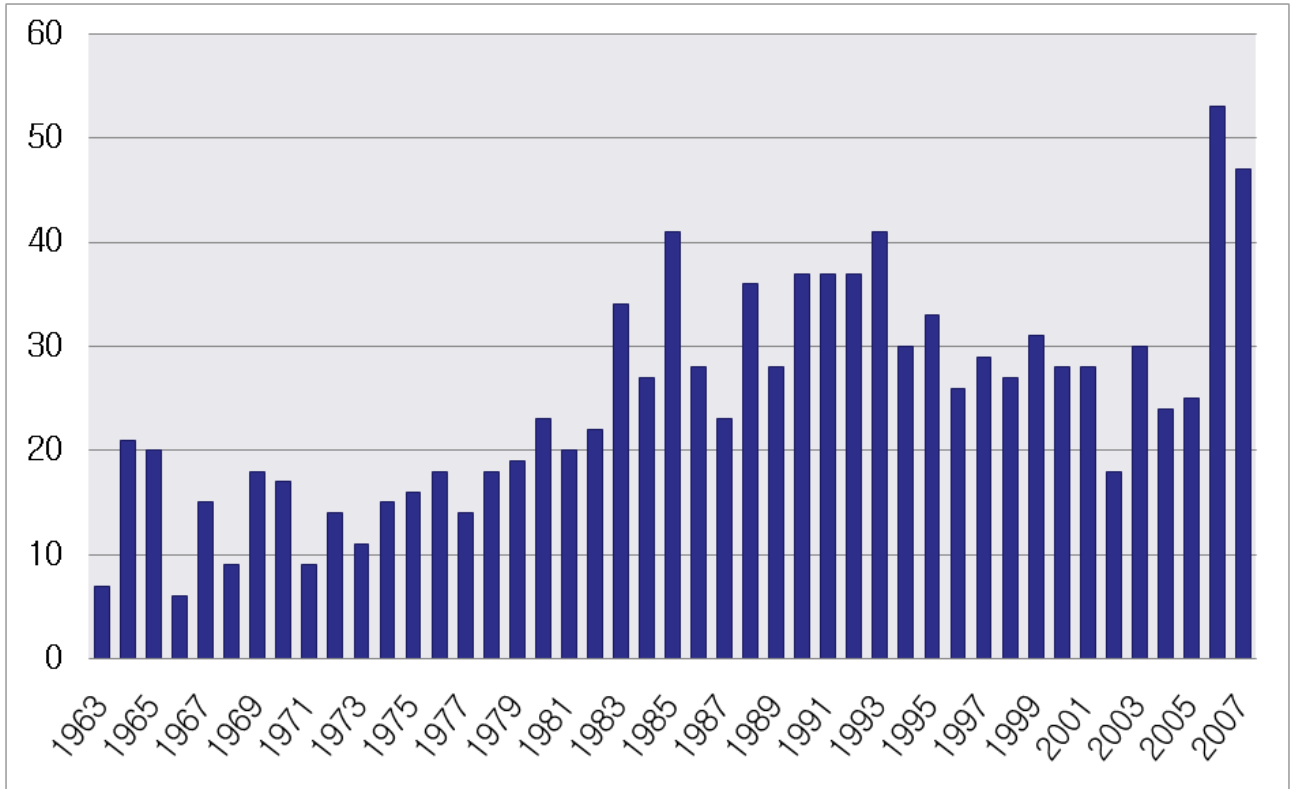


그림. KJP 연간 게재 논문수의 변화(1963-2007).

5. 맺음말

KJP가 SCI의 문을 두드린 지 15년 만인 2008년부터 SCIE에 등재키로 결정되었다. 등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요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완전 영문학술지로 전환 후 자리를 잡은 점, impact factor와 피인용빈도의 급격한 증가, on-line에서 논문 전문 제공, 게재 논문 편수의 증가(영향력 있는 논문), 거부율 증가, 발간일 준수, 편집의 완벽성 등일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

1.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해 학술지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시오.
2. 학술지의 on-line 논문 전문 무료 제공이 impact factor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3. 학술지의 논문 거부율(rejection rate)이 impact factor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